

## 승부예측 999 와 모스랜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Mossland 모스랜드 카페매니저

1:1 채팅

2021.07.15. 16:33 조회 1,743

댓글 0 URL 복사

첨부파일 모아보기 1

안녕하세요. 모스랜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승부예측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와 NFT 기술의 활용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뜨거운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계속 좋은 서비스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스랜드가 되겠습니다.

### 승부예측 999 서비스 소개

'승부예측 999' 는 스포츠 경기 승부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상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참가자는 매일 제시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포인트는 실시간으로 랭킹에 반영되며 순위에 따라 매주 모스코인(MOC)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뿐만 아니라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도 예측 대상에 포함한 점이 특징입니다. 참가비나 유료 아이템 구매 등이 전혀 없기에 순수하게 스포츠 분석과 예측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점이 차별화됩니다. 스포츠 직관의 묘미를 잃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친구, 가족과 함께 경기 결과를 예측하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언택트 응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Q: 승부예측 999는 사행성 서비스인가요?

A: 승부예측 999 는 사행성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에서는 "사행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 2조

위 조문을 보면 '참가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만 사행 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예측 999에서는 참여 과정에서 그 어떤 형태의 결제도 받지 않고 있으며 재물은 물론 재산상 이익을 거는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부예측 999 는 법적으로 사행성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국내 법무법인에게 받은 승부예측 999 서비스의 국내 적법성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모스랜드\_승부예측999\_국내적법성검토의견서.pdf

2013년 이전에는 승부예측 서비스가 사행행위가 아니라도 스포츠평타와 유사해 사행성이 우려된다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이 스포츠 예측 게임을 스포츠평타를 모사한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을 하였고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웹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스포츠 예측 게임도 웹보드게임과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하며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웹보드게임을 운영하는 NHN, 네오위즈, 엠게임, 넵튠 등 중견 게임사들이 스포츠 예측 게임을 준비하고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 합법화된 스포츠 예측 게임, 20조 불법 시장 양성화 도전, 중앙일보, 2020.07.28 [\[바로가기\]](#)
- 네이버 스포츠 해외축구 승부예측, [\[바로가기\]](#)
- 프렌즈사천성, 라인탄탄 게임으로 유명한 넵튠의 '따다' 서비스, [\[바로가기\]](#)

#### Q: 스포츠 승부예측과 메타버스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A: 스포츠는 현실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게이미케이션된 분야입니다.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도 볼거리지만, 다양하게 수치화된 선수들의 능력과 기록들을 분석하는 재미는 가장 검증된 데이터 엔터테인먼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 베팅 시장, 북미 판타지 스포츠 시장 등)

승부예측 999는 현실의 스포츠 세계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가상 세계에 반영시켜 만들어 내는 메타버스의 시작입니다. 승부예측 999 메타버스는 현실의 스포츠 결과에서 파생되며, 그 안에서 예측을 통해 새로운 승부와 승자, 기록들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더 투명하게 가치가 공유되고 재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부예측 999는 블록체인 기반의 판타지 스포츠 개발, 스포츠 데이터 NFT의 생산 등으로 이 메타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Q: 모스랜드가 바라보는 NFT 시장의 방향은?

A: NFT는 등장과 함께 가상 자산에 대한 가치 상승의 기대를 불러왔고 게임 가상 자산, 미술품 거래,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시도되고 있으며 몇몇 시장에서는 거품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관심의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모스랜드는 지속 가능하고 (Sustainable) 대중적인 (Massive) NFT 사업 영역을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그러한 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저희의 몇 가지 관점을 공유드립니다.

NFT는 가상 자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NFT는 메타버스 내에서 본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기술적 완결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떤 미술품에 대한 NFT 경매를 앞두고 소장권과 저작권의 충돌로 논란이 발생하였고 결국 경매가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자산을 대상으로 하면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접점이 필요하기에 신뢰의 비용은 여전히 높게 발생합니다.

NFT 가상 자산의 가치는 지속 가능해야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FT 등장 초창기에는 게임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게임의 경우는 이전부터 게임 가상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했고 NFT 기술이 적용된다면 거래에 있어서 신뢰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고 가상 자산의 가치 상승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게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가상 자산의 가치는 게임 라이프 사이클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로 예상보다 NFT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NFT는 대중 콘텐츠와 접목되어 누구나 생산할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을 만큼 개수가 많아져야 거대한 비즈니스로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니아의 영역으로 수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미술품, 스포츠 선수 카드, 유명인의 창작물의 거래 수단으로서만 NFT가 활용된다면 대중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대중문화 콘텐츠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모스랜드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NFT 기술과 결합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Sustainable) 대중적인 (Massive)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스랜드는 승부예측 999 서비스를 시작으로 NFT 기술을 이용하여 스포츠 메타버스(판타지 리그)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예측 데이터, 스포츠 선수와 팀 그리고 시즌 별 기록을 NFT 화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타지 리그를 운영하는 것이 모스랜드의 스포츠 메타버스의 청사진입니다.

스포츠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대중 문화입니다. 스포츠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문화이자 산업이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스포츠 경기 데이터는 온라인화되어 콘텐츠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스포츠 경기 데이터를 이용한 가상의 게임인 판타지 스포츠가 대중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언택트 스포츠 문화가 확산되어 판타지 스포츠는 1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판타지 스포츠와 이스포츠의 데이터는 메타버스 내에서 본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NFT에 접목한다면 지속 가능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부예측 999는 이런 저희의 발걸음의 시작점이며 단계별로 스포츠 데이터를 NFT 화하고 스포츠를 메타버스에서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 KBO리그도 아이템...10兆 '판타지 스포츠'가 뭐길래?, 아시아경제, 2020.06.19 [\[바로가기\]](#)
- 이종섭·김환기·박수근 NFT 경매 취소..."물의 일고여 사죄", 연합뉴스, 2021.06.02 [\[바로가기\]](#)
- "NFT 산다고 저작권 갖는건 아냐"...문체부, 내달 가이드라인 배포, 매일경제, 2021.06.25 [\[바로가기\]](#)

#### Q: 승부예측 서비스의 NFT 활용 계획은?

A: 단기적 목표로 예측 데이터를 NFT 화하여 예측 실력의 신뢰성을 높여 가치를 창출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스포츠 베팅 시장과 북미 판타지 시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의 분석 정보는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스포츠 분석 전문가에 의해 데이터가 생산되고 데이터의 신뢰 비용이 높은 영역입니다. 예측 데이터의 NFT 화로 승부예측 999 유저들의 스포츠 분석 능력의 신뢰 비용을 낮추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매우 높은 가치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생활 문화가 스포츠 영역까지 확산되며 자신의 지역에서 열리는 스포츠만 관람하던 문화에서 전 세계의 리그를 온라인으로 즐기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야구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KBO 리그의 시청자가 급증하기도 하였고 KBO 선수와 팀의 분석 데이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e스포츠를 매우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인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각국의 지도자와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의 평균 게임 실력과 경기 분석 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한국인의 분석 정보에 전 세계인이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부예측 999 에서 발생하는 예측 데이터는 NFT 기술을 이용하여 충분히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목표로 시즌별 선수와 팀 그리고 국가의 기록을 NFT 화하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스랜드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잇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지향합니다. 현실의 스포츠 결과에서 파생된 NFT 데이터로 가상의 스포츠 메타버스 속에서 새로운 승부와 승자,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365일 24시간 전 세계 사람들과 새로운 승부를 펼칠 수 있는 판타지 리그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스랜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판타지 스포츠 개발, 스포츠 데이터 NFT의 생산 등으로 메타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